

<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인사말씀

다시 뛰는 도서관계가 됩시다



김 태 승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한상완 위원장님, 새로운 제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 김재운 국회의원님, 그리고 1991년부터 도서관 정책을 맡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오신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전국도서관대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서관계는 아름다운 평화와 미래의 섬 제주에 모였습니다. 오늘보다 더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서관의 앞날을 함께 생각하고 모색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가 44번째 모임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 우리 선배들이 전국도서관대회로 모였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흑백사진으로 남은 선배들의 모습에서 어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그 시절에도 그렇게 맑은 웃음과 열정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많은 도서관대회에 참석했었는데, 때로는 시간이 갈 수록 도서관의 외형은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 우리 도서관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과 열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도서관계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뵈오니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결과 보고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인사 말씀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행사 일정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지원봉사 활동 후기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즐거움이 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에 전세계 도서관계에 성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제72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그 이전 어떤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정보시대, 문화의 세기, 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도서관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대회를 치르느라 전국도서관대회로 모이지를 못해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서관인들이 세계대회에서 중흥무진 활약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랠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내온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해서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과 집행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하게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새 「도서관법」은 각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빠르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서도 조례 제정과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방행정에서 도서관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어 지역에 맞는 도서관 정책과 실천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우리 도서관계도 할 일이 분명해 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서관 종류별로 모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 정책의 지방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역별로 자발적인 도서관 단체를 만들어 스스로 책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각 지역별로 도서관협회를 결성하여 모든 도서관들이 주민들을 위해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도서관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원과 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국도 새롭게 개편하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과 회원들의 구체적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와 평의원을 확대함으로써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협회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협회 살림과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협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계시다면 우리 협회에서 함께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늘 남의 입장에 끌려 다녀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도서관과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대회에는 예년과 다르게 우리 협회 11개 산하협회의도 함께 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 다소 소원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협회로 서로 힘을 합쳐 서로의 발전을 돕고 함께 그 성과에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대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도서관과 관련 단체, 기업 여러분, 또한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기업들, 그리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이론과 기술, 쟁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도서관과 기업과의 만남, 그리고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회에서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화룡정점으로 맺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가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방 정국에서 도서관을 통한 새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회를 결성하고 도서관대회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았던 선배 도서관인들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시 뿔시다. 감사합니다.

<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격려사

격려사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제주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애쓰셨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값진 만남과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도서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전 도서관인의 열정과 역량이 하나로 모여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 깊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세계화와 개방화로 대표되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조와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 정도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국민의 창의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지식정보 발전소

로서의 도서관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배움의 도서관, 정보 이용 격차를 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정겨운 도서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갈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 제주도에서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 미래를 향해, 너른 바다에 배를 띄웁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제주도 대회가 아름다운 추억과 새 희망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결과 보고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인사 말씀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행사 일정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자원봉사 활동 후기

<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환영사

환영사



김 태 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신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제주가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태풍 '나리'로 인해 도서관 대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은 추석 차례상마저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복구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안겨줬던 태풍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전국의 도서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보다 더 거대한 세계 속의 도서관'을 추구하는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와 '세계 제일의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이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소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여는 것이 곧 미래를 여는 것이라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존중하며, 또 사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도서관 수준은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인구 1인당 도서관 이용회수나 도서관 운영예산 규모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한 대표도서관도 내년도 전국 제1호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선진 문화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 모두가 책을 여는 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의지와 비전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도민들의 마음을 읽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뜻에서 이 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만난 친구가 오래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저는 태풍의 악몽을 치유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만나게 된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인연을 소중히 오래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작의 땅 제주에서 열리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기조연설

도서관계의 적극적 참여가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엽니다



한 상 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주최한 한국도서관협회의 김태승 회장님과 산하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저는 지난달 태풍 나리에 의해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도서관계가 염원해왔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전국 도서관계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우리 도서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곳 제주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며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작년에 우리 도서관인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개최했던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세계대회에서 다시 모인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서울에서의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참가자 모두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성공의 힘은 바로 우리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작년에는 세계대회를 치르느라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 것은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한껏 보여주셨던 역량으로 이번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 같은 정부 내 강력한 정책기구의 탄생을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속도와 범주의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 등을 통해서 도서관 문화와 행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며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과 정보, 문화와 평생학습이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개인의 존립과 번영에 핵심가치가 되는 시대를 맞아 이를 뒷받침 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인 만큼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현안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는 우리 도서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업무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도서관대회는 관중을 뛰어넘어 모든 도서관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중의 도서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보일 때 도서관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년 4월 발효된 새 「도서관법」에는 지역단위 도서관 발전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16개 시·도에 지역 내 관중을 아우르는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지역 내 모든 도서관들의 관계설정과 발전을 돕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도서관 협력과 연대를 도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튼실한 관계망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날 도서관계에 주어진 관심과 지지, 그리고 구체적 지원이 가능했던 한편에는 교육계나 출판계, 독서운동계, 지역운동과 NGO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부문과의 연대에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들 부문과의 진솔한 대화나 정책조율, 공동사업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도서관과 도서관인에 대한 지지도 폭넓게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식정보 기반 경제시대에서 우리 도서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시키고, 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서관계가 다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앞세워 당당하게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메마른 이 시대의 갈라진 틈새를 메우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정서,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잡고 진정한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꼭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의 미래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도서관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서관 시대, 풍요로운 도서관의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